



#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Soo Ho Lee Editor

VOL. 4 NO. 2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EB. 1977



(다듬이질)

## 교민 여러분께

한인회 이사장 신 호 범

친애하는 교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 가정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삼가 축원 합니다. 금년에도 훌륭한 회장과 임원들과 같이 한인회를 책임지며 봉사 할 수 있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지난달 회장 취임사에 금년 봉사 비전을 여러분께 소개 하셨는데 이사진에서도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협조하며 봉사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한인회는 첫째 한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진정한 친목 봉사 단체가 되어야겠으며, 둘째 한국 및 한국계 미국인의 권익을 정당하게 정부로 부터 찾아야 하며 또한 찾고자 노력하는데 강력한 대변 기관으로서의 구실을 다해야 하며, 셋째 7천 교포의 모체와 중심점을 갖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 단결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인회도 성장하여 장래 이민 오시는 교포들이나 또 여기서 탄생한 국민 자제들에게 기반을 잡아주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께 잘못 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널리 용서해 주시고 한인회를 위해서 도움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상항(桑港)의 柳氏村은 오순도순 하더라

서 두수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짝지를 잡고 꼬부랑길을 가는데 사람이 본어이다. 내가 우리나라의 대학들을 키워 보려고 배우려고 집안 형편도 어려운 중에 미국을 다녀가기로 했던 것이 잘한 것이었는지 못한 것이었는지 떠돌이생활을 지낸 지금도 상기 답이 나오지를 않는다. 서울대학교에서 그해 입학시험을 총판 실시하는 일을 마무리 한날 저녁 인연에 나와 자고 다음날 탄 배는 그날밤 파도가 높다는 다도해를 스쳐 고국의 수역을 벗어나게 되어 난생 처음 떠나는 먼 배길이라 그러했는지 고국의 이모저모가 몹시 애도웠던것을 기억한다. 배는 나의 감상여위는 아랑곳 없는양 자꾸만 달리더니 급기야 클자 그대로 파도조차 교묘한 태평양을 찾아 들면서 부러 마음 놓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속도를 더하였다. 갑판에서 어디서 따라왔는지 뱃전을 스쳐나오는 갈매기를 보면 고국의 모습을 되새기기도 여러번이더니 마침내 먼 항해의 마지막 날 아침 햇볕에 쬐겨져 眼界에 들어오는 상항의 항구는 무척 아름다웠다. 차이한팅 하게 큰 골든·브리지 보다도 멀리 산비탈 같은 곳까지 깨끗하게 칠을 한 집들이 사이좋게 서 있는 품이 몹시 고향다. 여러가지 색으로 칠해진 집들 중에 흰색이 품위를 지니고 버 눈에 들어왔다. 나에게 흰색이 칼러리스가 아니고 모든 색이 잘 조화된 빛으로 녀여짐은 어찌할수 없었다. 이러한 상항에 나는 두세주일 머물게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 뵈게 된 한국교포의 선배선배 여러분은 끔찍히도 자상하였다. 처음으로 영사관을 열고 나와 동행하게 된 밀급사람 新渡 渡船들에게 가쁜 도움을 베풀어 주신 주영한 선생은 지금도 소식을 전해 주시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포 사회의 선배선배들은 연만하시면서도 격상하였다. 외지에 살아 나라 없는 모멸과 무시를 유형무형간 받으면서 사는에서 연어진 갖게 주종잡힌 얼굴에 그래도 부드러운 미소를 짓드릴줄 알았고, 험한 일로 손가락 따

디마디에 못이 박힌 손바닥에는 그래도 따뜻한 운기를 지니고들 계셨다. 이분들에게 1919년의 3월 1일이 고국의 독립이 달성된 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다. 이분들은 상항에서 유씨촌을 이루고 오순도순해 보았다. 이 유씨들은 자기들이 젊었을 때 숨쉬고 살든 고국에 마냥 눈을 던지면서 느닷없이 한숨쉬기를 계속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유씨들은 자기를 나라를 영광되게 하는 일이면 그것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小異적은 의견의 차이를 넘어 설줄 아는 예지를 지니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그해 8월 15일밤 해방 후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잔치를 영사관이 여느 큰 홀에서 공식으로 베풀었을 때 이분들은 小異를 버리고 자리를 같이 해서 와준 각국 영사와 그곳 유씨들에게도 짙은 감명을 주었다. 부락을 받아 하는 나의 기념사는 이렇게 해서 얼마간 장황해 지기도 했다. 조국광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自取해서 온갖 괴로움과 아픔을 이겨 낸 이들 노교포들은 서로가 好호를 부르는 사이였다. 그러나 이 지방 유씨들은 내가 가보아 잘 아는 경향도 하회땅에 몇세대를 이어 살아오는 柳氏들이 아니었으니 내가 유혹을 떠나기 직전에 어느분에게서 얻은 지식으로 상항의 유씨는 하회에 사는 유씨 모양 족보에 얽매인 유씨가 아니고 미국 새천지에 사는 한족 겨레라는 통붙은 생각에서 인연 맺어진 유씨들이 있으니 개화축이 변한 Y-O-U 씨이니 너니 당신이니 그대하는 따위의 호칭에 성미를 부리는 정력 낭비를 모르는 교포 선각들이었다.

(글 쓴여: UW 교수.  
구 한인회 이사장)

필요한 모든 식품이 있습니다.  
주소; 9641 15<sup>th</sup> AVE S.W.  
White Center.  
전화; 762-5620  
**중 앙 식품**

# 보-잉 회사와 우리 교포들



손 홍재

씨아틀에 있는 한 큰술처로서 이 근처에 사는 우리 한인교포의 생활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주는바 적지 않고 또 한인들 중에는 보-잉 회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신 분도 있을것 같아서 여기 간단히 적어 볼까 한다. 한국사람으로서 보-잉 회사에 취직을 청해 본 사람으로는 아마 내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1948년 여름, 내가 UNIV. OF WASH에 온지 되달밖에 안 되었을 때 여름 휴가가 되어 미국학생들은 즐겁게 집에 돌아가고 또 취직자리를 마련한 학생들은 돈 벌이를 시작했다. 때마치 전후퇴역군인 법람으로 불경기 시절이라 우리들 같이 소수민족출신 학생에게는 일터가 쉽게 있을수가 없었다. 이 곤란을 본 내가 아는 어느 미국사람은 자기 친구가 보-잉 중역이라 하며, 보잉 회사에 일자리를 하나 구해 봐 주겠다고 했다. 그 사람은, 내가 공과계 대학원에 다니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후에 그 知人한테서 때가 불경기라 그 중역의 아를 조차도 일자리를 못 얻었다 하며 소식이 왔다. 내가 알기에는 1948년에는 보-잉 회사에 한인 종업원은 하나도 없었다. 보-잉은 그 당시 군용특력기를 만들고 있었으니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물론, 二世東洋人도 취직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한인들이 보-잉 회사에 관련을 갖게 된 것은 1955년경이라고 생각 한다. 한인으로써 이 무렵에 제일 처음에 社員으로 정식 취직 한 분은 1957년에 사원이 되신 이 창희 선생이 아신사 한다. 總計를 보면 1950년을 전후해서 二世東洋人을 채용하기 시작 했던것 같고, 더구나 1950년 초부터 민용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하여 RENTON에 舍社를 따로 세운 후로는 많은 동양사람을 쓰기 시작 한듯 하다. INDIANA주에 있던 나도 1958년 여름에 취직에 응모 했더니 합격이 되어서 또 다시 씨아틀에 오게 되었다. 취직이 되어 씨아틀에

와 보니, 보잉에는 한인 종업원이 三·四人 되는듯 싶더니 一年이 못되어 十名이 넘게 되었다. 1960年初부터 1970年 낙스 대통령 불경기로 한주일에 평균 1000여명씩 해고 하던 해에 이르도록 보잉 회사에는 약 15명 정도의 한국사람이 일하고 있었다. 현재 큰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 홍식씨도 1960년 초에 보잉에서 활약하시던 한 ENGINEER 이시고, 그 외에도 보잉에서 일을 하다 만 곳으로 간 한인교포들도 많다. 그 중 몇사람은 한국으로 돌아가 중요기관의 간부가 되었다. 1970년 이래로는 보잉 경기는 좋지 않았다. 따라서 종업원 채용은 일반적으로 저조 하였기 때문에 한국사람 수는 10명을 넘지 않았다. 현재 보-잉 회사에는 미국 중부나 동부에 있는 만 큰 회사에 비해서 외국출신의 사원이 많다고 생각 된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외국에 팔려면 외국출신의 종업원이 많은게 유리하니까' 이라고도 한다. 그 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외국출신에게 이 나라에 와서 生活를 꾸밀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될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 섭섭히 느끼는 것은 외국출신사원 중에는 한이내가 딱 적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에 이민 온 한인 수가 최근 급증한데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출신이 적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 소수민족(미국시민)의 취직에 관해서 가장 강력히 옹호하는 법에 1964년의 민권법(CIVIL RIGHTS ACT)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은 취직에 관해서 차별대우 하는 것을 범죄라 규정 할 뿐 아니라 그 위반을 처벌하는 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있다. 보-잉같이 나라의 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회사는 이 법을 반드시 준수하게 되어있다. 이 법에 의하면 회사의 인종별종업원 수는 그 회사가 있는 지방의 인종별 수 비례와 같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니까 보잉 회사에는 100명중 2명의 동양인이 있어야 된다. 이셈으로 치면 총 종업원 5万中에는 千名의 동양계 종업원이 있어야한다. 이것을 보드라도 우리 한인교포는 앞으로 더 많이 보잉 회사에 진출해야 하겠다고 할 수 있다.

# 한국 어린이와 한국 말

김 석 민



제가 다년간 이곳에서 아세아인 교육협회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문화단체에서 활약하며 종종 많은 아세아인들(비록 비인, 중국인, 일본인 등)로부터 받은 조언은 한국인들도 지금부터는 구태어 자기의 고유한 문화·풍습·언어 등을 소홀히 여기며 미국화 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으므로 최소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집에서 모국어(한국말)를 쓰며 말 할 줄 알도록 하는 유익한 점들을 주입시켜 주므로써 한국계 미국인다운 뚜렷한 개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이곳 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는데 더욱 의미 있고 떳떳한 인간성을 형성시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온 지혜있고 명리한 학생들은 쉽게 모국어를 잊지 않을 것이지만, 이곳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 학생들은 부모들의 태도에 따라 애석하게도 이중어 보존의 기회를 상실케 되는 현상이 종종 눈에 띄이게 되는 현실입니다. 반드시 모국어를 못하고 영어만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크게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능아가 아니면 인간이 한나라말은 누구나 유창히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어린이들은 거의 매일 학교에서 영어만을 주로 쓰게 되므로 집에서 영어를 쓰던 한국말을 쓰던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무의식중에 두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많은 구라파 사람들이 체험하는 사실입니다. 구라파 계통의 백인들은 혼혈결혼을 하는 확률도 많을뿐더러 이곳에서 한 세대만 지나서 영어를 유창하게 할 단계에 들어가면 으레히 미국인으로 취급을 받지만 유색인종은(아세아인의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의 경우) 외국인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음은 자다가 공인하는 사실이므로 모국어만이라도 다소 보유함이 때로는 여러 면으로 보아 어느정도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제가 매일 미국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이따금 학생들이 글을 영망으로 쓰면 '너의 나라말 하나도 제대로 못쓰는 것 보면 한심하다'고 하며

'많은 아세아계 학생들은 두나라 말을 제대로 쓰고 읽으려고 애쓰는 것을 이 도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면 고개를 숙이곤 합니다. 사실상 많은 비록 비인, 중국인들은 이중어가 동등하게 유창한 줄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고 자녀교육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일본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1년이나 2년간 일본으로 유학을 시키는 것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교편도 잡아본 경험이 있음을 알고 종종 자녀들을 보내는데 대해 상의도 해 오곤 합니다. 이러한 예로 보아 한국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일생을 살게된다 하여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을 유창히 한다는 것이 결코 자랑 할만한 일은 못 됨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자녀들이 순진성을 잃기 전에(부모님 출하에서 지도를 손수히 받을 때 부모님들이 하실수 있는 가정교육의 일부로 생각하시고 한국말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후에는 반드시 보람을 느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언어가 자유롭게 교환되지 않음으로서 간격이 더 생기게 됨과 더불어 피차간에 잘못된 일종의 비극이 가정에 잠재하고 있다는 말을 다른 아세아인들로부터 들을 때 때로는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어문학을 매일 가르치며 미국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주고 받을 때 느끼는 점과 한국학생들이나 일본 교포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느끼는 점이 여러면으로 보아 많은 감정과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저로서 학부모들에게 다소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 소감을 전해 드립니다.

(글 씀이; 와싱턴주 아세아인 교육협회회장)

## \* 3·1절 기념 행사 \*

한인회와 UW 학생회 공동 주최로 3월5일(토) 오후 8시 30분에 삼일절 기념식을 가지기로 하였으며 식을 마친후(9시) HUB 309 A실에서 다과회를 갖게 되오니 교포들께서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장은 UW ARCHITEC 빌딩 207호실입니다.



#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최 용걸 목사

하나님은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 하신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의 사랑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 할 것인가.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지 할 때 행복한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사랑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모시고 살면 이에서 더 큰 축복이 없다. 영국의 문필가 존 러스킨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한 이 세계는 고아원과 같은 것이요 만일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단지 방황하는 어두움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모든 종교와 철학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한 말씀 안에 싸여 있으니 이 아버지 안에는 모든 진리와 지혜가 포함 되었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생활과 그의 신앙과 그의 침묵과 그의 말 할수 없는 용기와 그의 희망의 비결이 아버지 안에 있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신나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보았으니 하나님은 뜻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시고 백합화를 위하여 커한 두루마기를 만드시고 심지어 양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는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서 여러분 한분 한분을 사랑 하신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퍼흘려 죽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 \* 안 내 \*

- 음자 관계 세미나  
미연밤 정부 주관의 소기업 음자관계 세미나를 개최 하기 위하여 희망자를 알고자 하오니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한인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없음)
- 상항 총영사관(영사 김 흥수) \$150 기부  
재정이 어려운 한인회를 위하여 상항 주재 총영사관에서 150불의 기부금을 보내 왔습니다.
- ALPHA ORIENTAL Foods에 감사  
아리랑 파티때 제공한 잡채를 맛있게 그리고 풍부하게 준비해 주신것을 감사 합니다.
- Mrs Armstrong 여사와 부인회에 감사드립니다.  
아리랑 파티때 음식준비와 음식관계 일체를 맡아서 봉사해 주신 타코마 부인회 임원과 회장께 감사 를 드립니다. 특히 Armstrong 여사께서는 20불을 기부하셨습니다.
- 자녀 교육문제에 관한 문의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 전학관계, 이중언어교육에 관하여 문의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rs. Kyung Sook Baek  
520 N.E Ravenna Blvd.  
Seattle, wa. 98115  
전화: 587-6434, 6435, 6425
- 한인회 임원 보강  
이사.....황 수철  
봉사부장...윤 미영 (364-3547)  
체육부장...김 원준 (767-7620)
- Portland 한인회에 감사드립니다  
부회장 Mrs. Harry park 와 박 정열 의사께서는 지난 '아리랑의 밤' 에 참석 하였는데 박 정열 의사께서는 우리 한인회에 \$60을 기부 하셨습니다.

詩

### 고향에도 봄은 왔을거라

박 암

봄은 해마다  
고향의 인정과  
취벽의 예쁨을 가지고 온다

창밖에 넘쳐 나는  
봄이 창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내 마음 까지도 환이 밝힌다  
대문 앞 붉은 동백꽃이  
송이 송이, 송이 송이  
태양을 향해 방실 방실 웃는다

살기 좋은 나라  
미국 와서 잘 산다고  
사는지도 벌써 다섯 해  
이맘때가 되면 어릴 때  
산골마을 내 고향서  
할머니 모시고 살든 남향 초가집 생각이 난다

뫼 동산에는  
진달래가 산을 기는가 하면  
깊은 그 어디선가 배꾸기도 울었지

겨울을 애써 참고  
파릇파릇 자라는 보리밭 저쪽 길에는  
소 풀고 가는 애들도 있었는데

멀리, 저 멀리 두고 온 오직  
하나 만의 내 고향에도  
지금쯤은 봄이 와서 파스 할거라

#### ○ 최창하 장노, 침사 자격증 받음

한국에서 수년간 침술업에 종사 하신바 있는 최창하 장노님께서는 California 주의 침술인정을 하는 침사 자격을 획득 하겠다고 한다. 최 장노는 현재 타코마와 시애틀 지역 교포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연락처; 784-2843

### 회장 칼럼

무엇을 먼저 할 까요?

여러 교포님들이 미국에서 더 의미있게 잘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영어가 생활의 첫째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기술이요. 이번 온 사람들을 위해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습니다. 즉 2년제(Community) 대학교. 이런 학교에서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밤에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영어를 많이 배워 능숙히 말 할 줄 아시고 또 뽀일설 줄 아시도록 계속 노력 하시면 보람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도 좋은 곳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며 미국생활에 취미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 ● Job Bulletin (사람 구합) ●

##### ★ 이중언어 교육 강사.

- 한주말 및 영어를 잘 하시는 분.
- 1주 15시간. 시간당 \$4.06.
- 연락처... 587-6366

Classified Personnel,  
Seattle Public School.  
815 4th Ave N. Seattle.

##### ★ Summer Jobs (학생을 위한)

- 15세~19세 남, 여.
- 주급... \$56 파 숙소, 식사 제공.
- 3/15/77 까지 신청 마감.
- 연락처... 725-8200 Mr. Byun.

##### ★ 재봉사 구합

- 세아틀 보임 회사 근처임.
- 시간당 2불 35센트
- 전화... 762-4782
- 담당자... Margaret Smith

<수필>

### 하늘과 바다와 땅의 푸르름

이 수호

이른 아침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 본다. 구름 한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눈 앞에 있다. 정말 깨끗한 마음이 된다. 맑은 공기를 힘껏 들이마시면 나는 부러운 것이 없다. 일터를 찾아 쏠살 같이 달리는 차들의 물결이 넘치고, 요란한 인생의 고달픈 하루가 시작 되지만, 내 마음은 이런 하늘이 있어 가볍고 평안 하다. 잡자리처럼 공중을 나르는 비행기들도 한 폭의 그림을 보듯 쳐다 보면, 우리의 삶이 즐거워진다. 여기서야 어디 조용한 나날이 있을까마는 때로는 밤 하늘을 쳐다 본다. 행여 거기에 둥근 달이 있는 밤이면,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밤이면, 나는 한동안 뫼를 잃고 하늘을 우러러 본다. 온 누리를 비추고 있을 저 달은 이제는 옛 달이 아니다. 우주인들의 발자국이 생겨버린 달이긴 하다.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는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달이다. 그래도 나에게겐 그 모습이 아름답고 커하고 고맙기만 하다. 저 달이 지금은 어느 곳을 비추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두고 온 내 고향의 어느 가난한 초가집 뒷뜰을 비추고 있으리라. 물새들도 깃을 찾아 가고, 파도만 와서 철석이는 어느 외로운 등대를 비추고 있으리라. 미래와 영원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창문도 조용히 비추고 있으리라. 유구한 역사에서 수많은 석학들이 그들의 지혜로 밝히려 애써온 저 많은 별들의 고향은 내가 관여 할 바가 아니다. 다만 오늘날도 창공에 별들이 빛나고 있음은 신이 나에게 베푸신 은총 이리라.

'여보, 바다가 얼마나 푸르고 넓어요'  
조용히 해변의 바위에 걸터 앉아 본다. 출렁이는 파도를 본다. 밀려 오고 밀려 감이 숨쉬듯 생동 한다. 천근의 산들은 산들끼리 손을 잡았다. 물새는 물새끼리 떼 지어 날고, 물 속에는 고기들이 떼 지어 논다. 작은 몸집으로 이리저리 바위틈을 날쌔게 다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모래 속을 짹짹 숨었다간

다시 나와서 열간이 처럼 가만히 있다가 기척이 나면 쏙 숨어 버리는 것들이 있다. 저런 펄시 코래우지 아니면 미꾸라지 이겠지. 아무데서나 공연히 꼬리를 치는 녀석이 있다. 유난히 꼬리를 치는 저런 또 무엇고? 좀 큰 녀석들은 작은 물고기를 못살게 군다. 마치 바다가 제것인양. 때로는 삼켜 버리기도 하리라. 그걸듯 하게 겁쟁은 녀석들도 있다. 유유자적 하는 저 물고기의 이름은 무엇 일까?

나는 인간의 세계를 생각해 본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물고기의 생태와 인생의 -생을 비교 해 본다. 참 재미가 있다. 신의 창조에 대한 오묘한 이치를 생각해 본다. 그걸듯 하다. 쓴 웃음을 웃어 본다. 바다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품에 안고 있다. 그러나 바다는 말 없이 푸르고 넓기만 하다.

자동차를 버리고 길을 걸어 본다. 잘 포장된 아스팔트이건, 흙이 묻어 나는 흙 길이건 상관 없다. 무체가 있어 좋다. 땅을 밟고 걸으면 지구에 산다는 실감이 절실 해 더욱 좋다. 아무리 험하게 디디어도 땅은 묵묵히 나에게 믿음을 준다. 마치 서늘의 말없는 그 친구 같다. 하루를 살건 십년을 살건,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땅은 그 땅 내가 사는 지구이다. 미풍에도 가뭄되 떠는 나뭇잎 들을 본다. 무거운 땅 속을 비집고 나오는 푸른 싹들과 잔디를 본다. 그들은 항상 푸른 희망을 안겨 준다.

푸른 하늘과 바다가 있고, 땅의 푸르름이 있는 날까지는, 나는 나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으로 부터 참고 견디며 살 수 있으리라.

**Henry Chang Travel Service**

☆ 모국방문단 모집 ☆ 각종수속 대행  
☆ 국내외 항공권 판매 (항공표 배달 봉사)  
9002 - 12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3-7052

Associated with  
AMERICAS TOURS & TRAVEL  
1218 Third Avenue, Suite 2307  
Seattle, WA 98101  
**Henry Chang Travel Service**

# 자동차의 안전 점검



## 허 권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한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교통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면 충분했던것이 오늘에 와서는 이밖의 고도의 기동성, 조종성, 안정성, 안락한 거주성, 그리고 인체에 대한 보안성 등 여러면에서 고도의 성능을 갖추지 않으면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되므로 위에 말한 조건들을 구비한 자동차가 진실한 자동차 일것이며 이러한 자동차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를 어떻게 유지관리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인가에 대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 기계적인 내용에서 이상적인 자동차라고 한다면
- A. 엔진과 기라 장치에서
- ① 출력 요구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양호 할것.
  - ② 정속하고 진동이 적을것.
  - ③ 공회 개스를 내지않고 연료비가 적게 들것.
  - ④ 고장이 적고, 수명이 길고, 고장시 수리손질이 쉽고 부속값이 쌀 것.

- B. 바퀴에서
- ① 공기저항이 적고 외관이 좋을것.
  - ② 승차감이 안락하고 안정하며 거주성이 좋고 안전할것.
  - ③ 조종이 쉽고 운전이 원할하고 정속 할것.
  - ④ 값이 쌀 것

그러나 사용시의 용도나 취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것이라야 되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자동차가 제작과정에서 위의 조건들이 구비되었다고 본다면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아무리 이상적인 자동차라도 평상시 유지관리를 잘못한다면 차의 수명은 짧아지고 심하면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점검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예방점검은 일상점검과 장기점검으로 구분하고 간추려 본다

- A. 일상점검 ... 매일 운행개시 전에 조향장치, 브레이크장치, 주행장치, 완충장치, 엔진·동력전달 장치, 기라 보조 부속장치 및 전날 운전중 이상하였던

곳의 점검을 말한다. 매일 점검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1주1회 정도는 점검 해야 될것이다. 일반 점검의 착안 사항은

- ① 조향 핸들의 심한 유동 및 흔들림이 없고, 이상하게 흔들리거나 무겁지 않을것. 연결장치에서 조임이 풀리거나 흔들리거나 심한 소음이 없고, 진열·골목 또는 앞바퀴의 심한 경사가 없을것.
- ② 브레이크장치 ... 브레이크오일 계통중에 공기가 혼입되지 말것. 페들을 밟았을때 바닥과 간격이 충분하여 제동작용이 양호할것. 브레이크오일 라인에서 오일이 새지 않고 고압이 확실할것.
- ③ 주행장치 (즉 타이어, 림, 액셀 접촉부등) 바퀴를린 볼트, 너트, 및 너트의 조임이 좋고 부러진 것이 없을것. 타이어 카림의 심한 마모나 손상이 없고 타이어 공기 압력이 적당할것.
- ④ 완충장치 (차가 주행중 받는진동을 억제흡수하는장치) 스프링의 절손, 진열 또는 부속부의 풀림이 없을것.
- ⑤ 엔진 (차의 원동력을 발생하는 장치) 시동이 쉽고 연료, 엔진오일 또는 방각수가 새지말것. 에어클리니의 작용이 양호하고 배기개스가 깨끗하고 매연의 발생이 없을것.
- ⑥ 동력전달 장치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해주는장치) 클러치 페들의 유격이 적당하고 동력의 차단과 전달이 확실할것. 트랜스미션의 조작이나 변속이 용이하고 오일이 새지 말것. 드라이브라인의 심한 진동이나 액셀 하우징에서 오일이 새지 말것
- ⑦ 기라 보조부속장치 (충전장치, 등화장치, 창밖기기, 경음기, 백미러, 각종 계기류) 배터리와 전해액이 정상이고, 등화장치의 작용이 정상이며 방향지시등의 점멸과 스위치의 동작이 정상일것.

B. 정기 점검 ... 정기적 또는 주행마일수에 따라 자동차의 전상태를 분해정비와 조정을 하는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인 자동차에서 매 3000마일 마다 엔진 오일교환, 브레이크오일량 점검, 매 6000마일 마다 엔진 튠업, 브레이크장치 분해 점검, 조향장치, 주행장치의 점검, 매 12000 마일마다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튠업 등을 하여 자동차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 함으로서

안전과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방점검을 하면 이상이 있는곳을 빨리 발견 할수 있고 그로인해 차량의 수명이나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지면 관계로 점검방법을 적지 못해서 애석하게 생각하며 다음기회에는 엔진의 튠업에 대하여 기술코저 한다.

(글 쓰이: 린우드 시청 모터볼 근무)

###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 합니다

와싱턴주 한인회는 여러분들의 협조로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진하여 보내 주시는 회비는 우리 한인사회를 위하여 값 있게 쓰여 질 것입니다. 회비 납부자 명단은 매월 한인회보에 발표하여 영수증을 대신 합니다. 회비는 년 5불 이상 입니다. 현금 우송은 금해 주시고 수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인회관 건립기금 접수중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뜻 있는 교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한인회비나 건축기금을 보내실때 다음 양식을 오려서 동봉 하시기 바랍니다.

|                               |                               |
|-------------------------------|-------------------------------|
| <input type="checkbox"/> 한인회비 | <input type="checkbox"/> 건축기금 |
| 이름                            |                               |
| 주소                            |                               |
| 전화                            |                               |
| 금액                            |                               |

\* 회비, 건축기금, □ 안에 체크 하시기 바람.  
보낼 곳;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교회 소식-

## 교회 창립 (한인 BEACON 장로교회)

2월에 들어서 씨아틀에 또 하나의 한인교회가 창립되었다. 김 천일 목사의 '한인 BEACON 장로교회'이다. 김 천일 목사님은 서울 봉천교회에서 10년간 봉직 하신바 있고, L.A '바울 선교회'에서 1년반 사무 하였고 한다. 목사님의 교회 설립에 관한 앞으로의 포부는 믿다가 뒤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고, 앞으로 들어나는 교포들의 수를 생각 하면서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정착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 하리라고 한다. 첫 주일예배때는 약 20명이 모였다고 하며 3월 6일 오후 3시에 창립 예배를 본다고 한다.

· 전화; (206) 524-7906  
· 주소; 1625 So. Columbean way  
Seattle, wa. 98144

**김 현 중 부동산**

(FRANK) HYUN CHONG KIM

\* 무료봉사: 출산 이사를 위한 베드링, 전 목초 출생 후 베드링이다.  
 \* 무료상담: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취급종류: 주택·아파트·호텔·도지·점포·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3112

## 김길량

# PROTECTION

119 YALE AVE. N. • SEATTLE, WASHINGTON 98109

PHONE: 622-7371

# 구정 맞이 아리랑의 밤 선교



지난 2월 19일 프라자 호텔 볼룸에서 베풀어진 '구정 맞이 아리랑의 밤'은 500명에 가까운 한인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막이 열렸다. 이날 예정시간보다 좀 늦은 8시경에 애국가와 울려 퍼졌다. 세 임원과 이사진 소개가 있었으며 전회장 김 성길씨에게는 감사패가 전달 되었고 이어서 한국교전무용의 순서가 있었다. 흥겨운 밴드 반주와 송 춘희씨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모든 교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0시경에는 간단한 스낵과 인절미 그리고 잡채가 구미를 돋구었다. 11시경에 이르러 시작된 경품추첨은 시종 긴장한 가운데 진행 되었다. 추첨이 끝나고 다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네 군데 자리잡은 호텔 바-는 바빠지기 시작 했다. 다정하게 손을 잡은 수많은 쌍쌍들은 볼룸 가운데 마련한 넓은 공간을 메우면서 댄스를 즐겼다. 오랫동안 즐겨보는 기쁨이었다. 짧은 시간을 아끼워 하면서 이날의 화려하고 즐거웠던 감미로운 순간들을 가슴에 지니고 새벽 2시경 조용히 막을 내렸다.

경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타코마 부인회... 쌀 100 파운드
- TEA LEAF 식당... 4인분 식권 (₩40)
- 이사장 PAUL 신... 쌀 50 파운드
- 중앙 식품... 쌀 50 파운드
- TURK WAY Food... 마우빙 1개
- 김 갈랑 이사... 현금 ₩15
- NORTH COAST IMPORT... 라면 2박스
- 오대방 식품... 주전자 3개, 불고기 판 5개
- BAMBOO HURT 식당... 식권 6매
- 알파 오리엔트 Food... 쌀 25파운드 짜리 5자루
- KOREAN MARKET... 냉면그릇 3개
- ORIENTAL GARDEN... 식권 3매

- LIEUS 식당... 현금 ₩10
- 북경 식당... 식권 5매
- 한국 여행사... 쌀 25파운드 짜리 5자루
- KOTRA... 한국 인형 2개

## 뉴스 News

**타코마 부인회** 회장 Armstrong 여사의 눈부신 활약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타코마 부인회는 다음 장소에 사무실을 가지고,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하는 사무원을 두어 교도들의 어려움을 돕는다고 한다.

전화 : 588-3697  
주소 : 6415 STEILACOOM BLVD. SW. TACOMA, WA. 98499

### 한인회 타코마 사무실 연락처

와싱톤주 한인회 타코마 지역 회원들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다음 장소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8시 부터 오후 4시30분 까지  
전화 : 588-3697  
주소 : % 6415 STEILACOOM BLVD. SW. TACOMA, WA. 98499

### 한인회 임시 사무실 마련

시아틀 지역 임시 사무실은 다음 주소에 위치하며 필요시 연락은 각 부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622 South Washington St. Seattle, Wa. 98104  
% Center for Asian Arts

**소니아 김** - 시아틀시 교우회 '공동체' 지역 연락 책임자로 임명 되었음.

**윤 학덕** 국기태권도 도장 개업) 다음 장소에 태권도장이 개업 되었다고 한다.  
전화 : 633-2273  
주소 : 434 1/2 University Way N.E. Seattle, wa. 98105

이 경영 계리사  
**Income Tax** 라면  
성심성의껏 봉사해 드리기로 약속하는  
저를 불러 주십시오!

- 중소기업 장부 정리
- 일반 인컴택스
- 세무상담
- 퇴직 연금 상담
- 기밀 절대 보장

SEATTLE OFFICE:  
1928 - 2nd Ave  
Seattle, Wash. 98101  
623-6626 - 623-9290  
322-3782 (24Hrs.)

TACOMA OFFICE:  
6415 Steilacoom Blvd. S. W.  
Tacoma, Wash. 98499  
(206) 588-0333  
Wed. Sat.

값싸고 좋은 보험 취급하는  
**INVESTORS**  
**보험대리점**  
집·아파트·상가 매매는  
**안 병용 부동산으로**  
무로 공증업무·투자상담  
Crescent Realty, Inc.  
Federal Way, wa  
교육·생명·저축·연금  
단체건강 보험  
안 병용 (PHILIP B. AHN)  
General Agent·Broker  
시아틀 전화: 838-2010 / 타코마전화: 927-7778  
2612 S.W. 332nd St. Federal Way, wa. 98003

## =연고 나서=

• 좀 더 잘 만들어 보자고 다짐은 했으나 역시 실행을 못한 것 같다.  
• 지면이 넘쳐 두고 해 온 글을 다 읽지 못하게 된 것은 필자들에게 아주 죄송하다. 다음 기회에 실을 수 있겠지...  
• 서 두수 박사님의 글은 다음 몇호에 걸쳐 계속 될 것 같다. 살아 있는 이민사를 그려 한인 교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획된 페이지 이다. 이번 부탁 드려도 언제나 쾌히 승낙하시는 박...은 머리가 수고러질 뿐이다.  
• 지면이 없어 '물'과 K박사는 월수 밖에 없다.  
• 전 계상 박사님의 '보영 회사와 우리교도들'은 많은 참고가 되었다라 믿는다.  
• 한인 회보에 글을 원고는 날짜에 관계없이 계속 수집하고 있는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투고 할 주신>

Soo DO LEE  
4011 SW 100th AVE  
Seattle, wa. 98146  
전화: 93...5623

남서 지역  
부동산  
주력 아파트 건물  
식당 상점 로지  
DEL VIANCO REALTY Inc.  
945 35th SW Seattle, Washington 98148  
지인 김  
JEAN KIM  
Associate  
(206) 932-4515  
Res. (206) 932-3595  
REALTOR

###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속) (2월 말 현재)

6. 현리 장 ..... ₩10
7. 고 창열 ..... ₩10
8. 김 영권 ..... ₩10
9. 백 세현 ..... ₩20
10. CHONG SUK OTIS ..... ₩10
11. 임 정식 ..... ₩5
12. 박 영권 ..... ₩5
13. 김 형달 ..... ₩10
14. HAIK SMITH ..... ₩10
15. OK HUI SOULDS ..... ₩10
16. 이 신남 ..... ₩10
17. 장 낙종 ..... ₩10
18. HAENG CHA ALMER ..... ₩10
19. Mrs. CHONG PUN McCauley ..... ₩20
20. 이 창희 선생가족 ..... ₩20
21. Nam CHU PEARL ..... ₩10
22. Koo Won Chun ..... ₩5
23. 진순 HUGHES ..... ₩10
24. 궁 창용 ..... ₩10

### 회관 건립 기금 납부자 명단

- 백 세현 ..... ₩20
- 고 창열 ..... ₩10

謹賀新年

NEW YORK LIFE



미국 까지 오셔서 고생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들의 보다 안정된 생활과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 때문이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교포사회에 보험을 시작하면서 파는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보험을 현명히 이용하시어 장래의 안정된 생활의 뒷바침을 위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함께 의논할수 있는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논하실 일이 있으면 다음 전화 번호로 불러 주십시오. 상담 내용은 개인성을 보장해 드리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을 지겠습니다.

뉴욕 생명보험 김치근 君

SEATTLE: 4121 Seattle-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Tel. 363-3704 Res. 232-9207

TACOMA: 6415 Steilacoom Blvd. S.W. Tacoma, Wa. 98499  
Tel. 588-0333

생명보험 • 저축생명보험  
교육보험 • 건강 보험  
주택및은행음자보험



ARROW REALTY

1122 EAST 72nd STREET., TACOMA, WASHINGTON 98404

부동산 매매

가옥 식당 상업건물  
모텔 토지 호텔

김 일 영  
IL YO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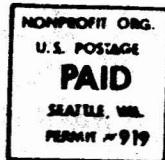
Off: 475-6262

Res : 845-2236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숨어 있는 아름다운 행위는 가장 존경 되어야 한다

- 파스칼의 광세 에서 -